

# “죽음 대비할수록 삶 더욱 윤택”

###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 ‘웰빙시대의 잘 죽기’



오진탁 교수



인양규 교수



김영욱 연구원



이진수 교수



강신표 교수



최준식 교수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린다. 남의 일 같기도 하고, 내게는 멀고도 먼 훗날의 일로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고 보면,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죽음을 대비할수록 삶은 더욱 윤택해진다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불교계 대중학술지 <불교평론>은 2005년 겨울호의 특집 주제를 ‘웰빙 시대의 잘 죽기’로 정했다. 특집논문으로 인양규 동국대 교수의 ‘부활, 웰빙의 한 해석’, 강신표 인제대 명예교수의 ‘죽음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생각’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의 ‘근사체할이란 무엇인가’의 5편과 총괄논문격으로 오진탁 한림대 교수의 ‘웰빙 시대에 왜 웰빙을 말하는가’ 등 6편이 수록됐다.

● **죽음준비는 삶의 교육**  
일찍이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한림대 오진탁 교수는 “웰빙의 참 뜻은 웰다잉에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지 못했다면 잘살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죽음을 기쁘고, 남의 문제로만 인식하다보니 잘 죽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다. 병실에서 차가운 의료 기계에 둘러싸여 튜브를 몸에 꽂은 채로 죽음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며 품위 있게 죽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평소 죽음에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며 살기란 더욱더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 교수는 “암이나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나 노후를 위해 연금을 부딪던 것만 중요한 죽음준비는 남의 일

인 양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역설적인 세태를 비판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죽음준비는 삶의 윤택성을 자각해 해, 현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되면, 하찮은 활동과 사소한 관심거리로 소일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자신에 몰입을 던지며 살게 되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이 점에서 “죽음준비는 제대로 살기 위한 삶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 **‘불방일’로 죽음 맞은 붓다**  
그렇다면 삶의 진면목을 깨웠을 붓다나 선사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인양규 교수와 김영욱 연구원의 논문이 해답을 준다.

인양규 교수는 <열반경>에 나타나는 붓다의 죽음을 살폈다. <열반경>에는 붓다가 열반에 들기 전 세상에서의 마지막 가

르침과 입멸 과정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붓다는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제행(諸行)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남긴 후 열반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다. 열반경에서 붓다의 입멸 과정은 정각의 순간과도 같이 선정과 밀접히 연계된 것으로 그려진다. 즉 붓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붓다의 모습에 대해 안 교수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붓다의 태도는 한마디로 ‘깨어있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대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애통해하지만 붓다는 무상한 육신 너머에 있는 열반을 추구하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선사들의 죽음은 어떻게. 김영욱 연구원은 “선사들은 죽는 바로 그 순간을 삶의 한 형식으로 수용할 뿐 죽음에 대한 추상적 관념이나 그것을 극복하는 고답적 이야기는 늘어놓지 않는다”고 말한다. 죽음을 질곡이나 해방으로 여기지 않는 선사들은 “그것에서 자유롭기 위해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으며, 화두를 놓치지 않듯 죽음의 순간까지 확인을 극력하는 고답적 이야기는 늘어놓지 않는다”고 말한다. 죽음을 질곡이나 해방으로 여기지 않는 선사들은 “그것에서 자유롭기 위해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으며, 화두를 놓치지 않듯 죽음의 순간까지 확인을 극력하는 고답적 이야기는 늘어놓지 않는다”고 말한다.

● **‘부활’과 ‘열반’**  
기독교에서는 웰다잉의 한 전명으로 부활을 꼽을 수 있다. 이진수 교수는 부활을 통해 예수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부활을 단순한 소생과는 구별했다. 이 교수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뤄진 생명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부활은 역사적 인물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듯 우리의 몸도 다시 살게 되리라는 희망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 이 교수는 부활과 열반을 비교했다. 이 교수는 “인과의 고통스러운 순환 고리를 끊어버린 데서 오는 안식으로서의 열반과 영생을 향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상태로서의 부활은 공통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불교평론>에 실린 강신표 교수와 최준식 교수의 논문은 각각 우리 문화 속에서 죽음의 근사체(死體)를 다뤘다. 강 교수는 세상을 떠난 후의 상례(喪禮)와 제례 전통을 보여줌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살렸고, 최 교수는 서양에서 조사·연구된 근사체할 사례를 제시하면서 근사체할의 진실성을 밝혔다.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7>

선사만큼 선의 경지를 잘 표현할 수단이 있을까. 선사의 단순하면서도 함축적인 표현을 보면 마음의 경지와 자연의 합일 등이 잘 드러난다.

혹자는 선사에서 지나치리만큼 소극적인 은둔의 태도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사를 좀 더 천착하면 정적인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다이내믹을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는 정적이지만, 엄청난 에너지, 활달함, 유머 그리고 적극적인 중생구원을 향한 비원이 담겨 있다.

1900년대 초기를 살았던 한국 불교의 봉우리 경허 선사의 선사에는 ‘바람이 대나무에 머물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물이 달빛을 담지 않는다’라는 시구 또한 유명하다. 바람이

## 물이 달빛을 담지 않는다?

### 전자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물

쓸고 간 후, 대나무가 제자리를 찾는 것, 달빛이 물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경지와 비유한 것이라.

그러나 좀 더 관철했 보면 놀라운 인과의 법칙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달빛은 달의 표면에서 반사된 태양의 빛이 지구에 다다른 전자파이다. 마치 핸드폰으로 수신되는 음성파는 파가 전자파이듯이, 빛 또한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이 20세기 초 맥스웰에 의해 밝혀졌다.

즉, 전계와 자계가 같이 덩어리가 되어 에너지를 전파되는 파동이다. 전자파의 파장에 따라서 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열로 느끼기도 한다. 파장이 긴 성분은 우리의 눈에 붉은 빛으로 보이고, 파장이 짧은 성분은 푸른색으로 보인다. 붉은 색보다 더 긴 성분이나 푸



## “재가자에게 율장 금서 아니다”

### 마성 스님, ‘철우 스님 입장’ 정면 반박

“율장은 재가자에게 금서”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이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5년 겨울호 <불교평론>에 실린 ‘율장은 금서인가’라는 논문에서 팔리 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사진)은 “한국불교 대부분의 율사들은 율장이 금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헌상의 근거는 전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마성 스님은 율장이 금서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과거사 영산출원 율주 철우 스님을 들었다. 마성 스님에 따르면 철우 스님은 저서 <사분비구니

계분강의초> 표지에 “비구·비구니 이외는 읽지 말라”는 경고문을 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이 조계종에서 대세를 이루다보니 동국여경원에서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에서 율장은 한때 제외되기도 했다.

율장을 금서로 간주하게 된 연유에 대해 마성 스님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상가 고유의 갈마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율장을 근

거로 출가자의 참회와 징벌 등을 결정하는 갈마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의 참성이 금지됐는데, 이를 확대해석해서 율장이 재가자 앞에 설해져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게 됐다는 것.

마성 스님은 “△붓다의 법과 율은 마성의 교설이 아니다 △붓다의 법과 율은 붓다의 유훈이다 △붓다의 법과 율은 진리 판단의 기준이다”고 밝히며 율장은 출가자의 전유물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마성 스님은 “출가자가 율장을 배우고 익히면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게 되고, 재가자가 율장을 배우고 익히면 출가자를 더욱 존경하고 외오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짜 승려는 점차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진정한 승려는 부처님처럼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여경원에서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에서 율장을 한때 제외되기도 했다.

### 제 1기생 모집

## 2006학년도 풍수지리학 최고지도자 과정

동방문화의 중심 동방대학원 대학교에서 세계 풍수지리학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모집한다.

「최고 지도자로 거듭나는 동방 대학원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이 될 것이며 친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명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내용	
음양오행론, 십이포태법	영리학 기본이론 및 감정법
산형론(龍, 穴, 砂, 水)	주역의 원리와 응용(상수역)
심혈법, 정월법	구성학 이론
나경 패철사용법	동양 천문 해석
형국론	서양 천문 해석
팔십팔향법	민력 이해와 활용법
장택법	택일법
양택상호, 동서사택론	수택
가상학	음용풍수, 풍수인테리어
유년도, 분영공	현공풍수

**입학자격**

- 입학자격: 풍수지리학 분야 기초이론 연구자, 저명인사 및 교수 추천자 입학 특혜, 전문상담사, 권위 있는 교육 강사 희망자 대면형
-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반영합관 사진 3매
- 입학정원: 81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120만원 (1학기)

**교수진**

한중수/최병용/곽민석/최경준/박영창/유방현 및 동방대학원대학교 전공 교수진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서 및 졸업패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풍수지리학 자격증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양택강정사 자격증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풍수지리학회 정회원 자격부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로 위촉

**교육기간**

- 입학식: 2006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8시
- 개 강: 2006년 3월 4일 토요일
- 교육기간: 1년(2학기)
-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 15:00~19:00

**입학안내**

- 접수기간: 2006년 1월 5일 ~ 2월 24일
- 접 수 처: 동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문화교육원 교학과 (또는 소개해 준 담당 교수)
- 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문의처**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교학과 ☎ 02)745-2140  
담당 011-9902-4640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東方大學院大學校**  
www.dongbang.ac.kr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 생노병사의 근본진광대도통비법 및 진광묘유신비의 천안통육경신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극에 있고, 생명과 건강은 태양에 있어 운명과 수명은 내이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하는 경신 도통 천안통 대법회

생노병사의 비밀인 근본에 대해서 언급한바없는 비밀법의 허공청정, 진공묘유인 운명과 수명 생명은 경맥도통 호흡이 다하면 사후의 세계로 떠나는 영과 혼의 비밀법을 병술년 윤달든 정월초 삼일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자와 근자속에 담겨진 근본 비밀을 공개하노라

● **모든생명은 태극비법에 천하의 생명의 비법이 다 들어있다.**

● **달마도법 태극비법은 도통근자들의 최고의 비법인 것이고 태극비법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여 천안통하는 법이며 모든병에 병이 되어 치료해도 안되는 잠신마장과 질병의 실체는 병을 제도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육경신수행법인 것이다**

천장지비에 감춰진 비법을 병술년 정월 초 2일과 3일 경신날 도통과 성불은 자신의 업장기기에 근본을 벗기어 천하대운을 받아 전성과 도통은 즉 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그 해결법은 자신의 업장인 것을 경신일 하늘이 열리는 오시에 사람몸 받은 그 메일을 벗기는 영산대제로 도통하여 업장소멸 하시고 단사 형통하시라.

특히 이번 천안통 법회에는 자신의 업장으로 모든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 남몰래 고생하는 분들에게 생전예수재 병술년 윤달 든 음 정월 초 3일 오시에 생전예수재 및 1년 한해 조상천도 구명식 대운맞이 영산대제로 삼재팔관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영산대제 법회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어 재수대통 하소서. 특별불공 250, 350, 550 동참불공 독신자 15, 가족동참 35, 55 동참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조상 5대 외가조상 3대 처가 친정조상 5대 외가조상 3대에 제사 못지사는 영가와 처녀, 총각, 영가 혼례제, 모태, 수자령, 유산영가들의 명단을 팩스번호 02)821-7768로 주세요. \*선착순 접수 (당일 행사는 혼잡함) \*농협 029-01-167866 광대일

### 윤달든 병술년 일년 대운맞이 영산대제로 삼재팔관 일체고액 소멸 천도 범패 봉행

자신속에 들어있는 신신부처와 삼라만상 성불도통 일체법은 천안통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윤달든 병술은 음 정월 초삼일에 경신이 든 근본은? 경신일은 60일에 1번이 들고,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수마를 이기면 모든 종교를 초월 신승귀용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천안통경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없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박한 잠안자는 잠신을 빙의되고 내가 과거 사 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 이룬 뜻을 풀어 자아원성은 물론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경신 수행인 것이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과제되는 비법인 것이다.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도술, 의술, 철술, 점술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참선, 요가, 단전, 명상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극비법이며 도개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고 병술년 정월 초 2일과 3일인 경신일이 들어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배속에 검은똥은 삼시구충과 저승사자인 고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저능화로 빙의 되어 각종 질병과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건강찾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도통하시어 큰 부자 되시고 재수대통하시라! 금년 삼재범패는 띠는 인오를 향동쪽(동경,진남,백)

**특별** 생노병사 해탈법 및 태극법과 건강, 운명 상담 ☎ 02)821-7767 Fax 02)821-7768

● **일제: 양력 2006년 1월 30일(음, 정월 초이름) (해시)**  
● **해제: 양력 2005년 1월 31일(음, 구정 초 3일) (해시)**  
● **02.821-6622.821-7767 016.239-3110**  
● **평생연구자료비 5만원 • 농협 029-01-167866 광대일(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 특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중 중 본산 태일합장